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년 4월 14일(화)	
담당 부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예방팀장 이영화 ☎728-6570 •담당 주무관 김지영 ☎728-6571
사진	있음(14시 30분 제공)		보도시점 배포 즉시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신기시장과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펼쳐

인천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차남희, 이하 센터)가 14일 신기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가치 함께, 기억 보듬’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협업해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 관리 사업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식 개선 메시지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생업으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과 조기 검진을 진행했다. 신기시장 상인회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차남희 센터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 검진에 있다”라며 “신기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치매 친화적인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오는 하반기에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치매 등록 관리 사업 ▲찾아가는 이동검진 서비스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곳에서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